

주일 예배 2026년 9월 13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 찬송가 29 장

*성시 교육 / 성시 교육문 71 번(이사야 55 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 찬송가 86(신) 86(구)

기도 / 한규철 집사

성경 봉독 / 고린도후서 4 장 16 절 - 5 장 7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보이는 것 너머를 사는 사람 / 박화신 목사

찬송 /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 찬송가 391(신) 446(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살아계신 주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우리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바울은 겔사람이 낡아지는 동안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2.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무는 장막과 같습니다. 장막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와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3. 하나님은 이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겔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지난 주
설교 요약

믿음은
사람을
보게 합니다

야고보서 2:14-20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던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고, 외로운 사람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만 하는가?”

교회 안에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필요가 나의 작은 행동을 움직일 때 비로소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는 삶에서는 이런 사랑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을 보지 않으면 참을 필요도, 친절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사랑이 필요해집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참아주고, 그의 필요에 마음을 내어주고, 때로는 나의 것을 나누기 때문이지요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믿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생명샘 소식

- 2026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 가을을 맞이합니다. 지난 여름 두 달간 우리 모두는 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의 힘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 우리 생명샘 온라인 예배를 실험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알리며 복음의 선포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호 미얀마 선교사님의 선교편지를 교회 홈페이지 소식란에 실어 놓았습니다.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시길 소망합니다.
- 지난 목장 모임을 통해 큰 은혜를 서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늘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 9월 27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각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9월 예배 위원

안 내	조 창		박승화		
기 도	박형우(6)	한규철(13)	김정신(20)	한미숙(27)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고후 4:18)

*Faith
for a Greater
Tomorrow*

보이는 것 너머를 사는 사람

고린도후서 4:16-5:7

성령의 보증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3가지 핵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고후 4:16-18)



지금은 장막이지만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무는 장막과 같습니다. 장막이 무너져도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와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고후 5:1-4)



성령의 보증으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고후 5:5-7)

오늘 우리의 결단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낙심이 아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SEE PEOPLE • LOVE PEOPLE • LIVE OUT YOUR FAITH